

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이초록 · 권치순*

(서울사당초등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4~6학년 학생 340명과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16명 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집단의 대표성이 있는 학생을 추출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Cronbach α 검사, 빈도와 백분율, 이원분산분석, Pearson 적률 상관계수 및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총체적, 사회적, 가정, 학교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 학생에 비해 보다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만족하는 성향을 보이고 이것이 자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반 학생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를 강조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이 보다 자유롭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하며, 성취의 과정을 중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성취를 돕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련성은 하위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장 관련이 높고,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이외의 다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과정 중심적 접근으로 부모와 교사, 영재교육대상자와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